

# 다시 불붙은 사퇴론... 文 ‘사면초가’

### 조경태·김부겸·안민석 “재보선 참패 책임져야 총선 승리” 문재인 “당 혁신 노력하겠다”...지도부 오늘 최고위원 회의

10·28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4·29 재보선에 이어 두 번째 치른 재보선마저 패배함에 따라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다.

비주류 조경태 의원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문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10·28 재보선 이후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제가 정치를 20년 했는데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대표를 처음 봤다”며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몇 번 진동이 온다. 우리 당 의원들이 떨쳐 일어나 당을 살리는 모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의 10·28 재보선 참패에 대해 “예견된 것”이라면서도 “참패 후에도 아파하지 않는 우리 당의 풍토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복 콘서트를 갖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서로 간 또 다시 살바싸움을 하면 정말 대책 없는 집단이 된다”며 문재인 대표에게 당내 제정과, 탈당파까지 참여하는 ‘만민공동회’ 소집을 요구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의 PBC 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역지로 끌어내려서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

무현)로 싸우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제안한 ‘통합전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그 동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당내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와 관련, 혁신과 통합을 통한 수습을 다짐했지

만 비주류 진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많이 부족했다. 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며 “우리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믿고 이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하며 이번 재보선 패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확정, 오픈 프라이머리 입장 정리, 윤리심판원장 인

사 등이 밀려왔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장도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르면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들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내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4인 이상 의원 14명과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중진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참여해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관악구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등산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추락하는 ‘호남 지지율’

### 10월 넷째주 18%...박원순 시장에 여전히 밀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광주 92.0%, 전남 89.3%, 전북 86.3% 등 호남에서 9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호남에서는 자신의 전국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아권 내 잡재적 대권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여전히 밀리고 있다.

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 단위 여론조사 추이에 따르면 문 대표는 재신임투표 카드를 꺼낸 9월 초 2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10월 들어 첫주 20.7%, 둘째주 13.9%, 셋째주 15.2%, 넷째주 18.

2% 등 10%대 지지율로 밀려 박 시장(첫주 22.2%, 둘째주 28.0%, 셋째주 22.4%, 넷째주 20.9%)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매달 둘째주 실시하는 조사에서도 문 대표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있던 2월을 제외하면 호남에서 한 번도 박 시장을 앞선 적이 없다. 6월부터는 전국 지지율도 역시 박 시장에게 월별 3~5%포인트 뒤처지고 있다. 특히 10월 둘째주 조사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8%로 박 시장(31%)은 물론 안철수 전 공동대표(20%)에게도 큰 격차를 밀렸다. 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9%)에게도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연합뉴스

## 여야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 국토위원장 선출안 등 처리 합의...4일엔 ‘2+2 회동’

여야는 오는 3일 무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안 및 계류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와 국회의장과 방한 중인 중국 리커창 총리의 면담 배석을 계기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본회의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내 실무진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주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4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도 열어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2+2 회동’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현행 검정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문제를 논의하는 아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정 교과서·전투기 개발... 예산전쟁, 진짜는 지금부터

### 국회 5일까지 심의...한·중 FTA 비준 등 현안 수두룩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한 달 남긴 이번 주부터 국회는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상임위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넘겨받은 예정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2일부터 5일까지 부별정책질의에 나서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돈보끼 심의를 통해 문제 예산을 속내에 예정이다.

문제는 오는 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고, 5일 마침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면서 ‘역사전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야가 오는 3일 무쟁점 계류 법안 처리와 공적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일 전격 합의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면 가파른 대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인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능 접어둔 상황이지만 이미 장외 투쟁에 한 발을 걸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교과서 정국 향배에 따라 정기국회가 ‘울 스톱’ 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치열한 역사 전쟁으로 여야의 인내심이 임

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정기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 총선정국의 주도권이 걸린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비록 지난해부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권한을 허용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논쟁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노동개혁 쟁점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데다 전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도 뜨거운 감자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가 경제 희생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법안 처리 등도 곳곳에 도사린 암초로 꼽힌다.

한편, 오는 3일 열리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 정국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4개 세력 연합 ‘통합진보정당’ 곧 출범

### ‘정의당’ 간판 내년 총선 참여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을 ‘정의당’ 간판으로 치르기로 합의하고 1일까지 추인을 완료했다.

이날 정의당 등에 따르면 통합당의 의견을 모은 4개 진보세력은 최근 대표자회의에서 통합정당의 당명과 지도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합의를 마친, 각자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했다. 지금까지 국민모임과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가 합의내용을 추진했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을 완료했다.

4개 세력은 통합정당의 당명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이 새로운 통합 정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당명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선 후 6개월 이내에 당원 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대신 통합진보정당은 애초 정의당이 주장한 단일 지도부에서 한 발짝 물러나 3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이후 나머지 3개 세력이 협의를 거쳐 2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 4개 단체의 대표들은 오는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진보진영 재편이 정의당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을 우려해 4개 진보세력 중 어느 하나도 대의위원회 전국위원을 비롯한 대의체제에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세력은 각 조직에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 11월 내에 통합당대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정당이 출범을 앞둔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및 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야권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농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 순례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순례.kr

**제7회 심진쇄란 승전지 해상순례**

2015년 11월 21일(토) 오전 8시 ~ 오후 5시

참가비 무료  
도시락, 음료, 간식, 기념품 및 리플릿 등 당일 필요 물품 무료제공 참가비 없음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을 우리 군함을 타고 순례하는 전국의 참가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안 천혜의 절경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상: 전 국민 초등학생 이상 400명 (5회 참가자 제외)  
신청마감: 2015년 11월 5일까지  
[공식홈페이지 www.이순신해상순례.kr / 강남신문 홈페이지 www.knnews.co.kr / 전화문의: 055-210-6102]  
선정: 신청자 대상 추첨 선정 (지역별, 가족·단체별 고려, 인원초과 시 예비후보 선정)  
※선정자 추후 분지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 055)210-6102 ~ 4

장정: 상륙함(UST함정) 연례군영 → 승안여역 순례 → 연례군영

주최: 경남일보  
주관: 경남신문  
후원: (사)21세기 이순신연구회 (사)충무공 이순신연구원

당신의 광경/젊음의 광경!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